

# 한글자 한글자...김대중 어록 서예에 담아

‘김대중 어록 특별 서예전’  
30일부터 LEE ART CENTER  
‘친필유묵’ 24점 등 전시



‘경천애인’(敬天愛人)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동양문화권은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원칙을 중요한 처세,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삼았다. 하늘과 백성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은 왕이나 군주에게는 중요한 통치 이념이었다.

‘경천애인’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이념이었다.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서거 15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록이 담긴 서예전이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서예전은 (재)김대중재단, (사)세계사에 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재)김대중재단 광주 전남추진위원회가 마련했으며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동 예술의 거리 LEE ART CENTER에서 열린다.

주제는 ‘김대중 어록 특별 서예전’이며 모두 80여 점이 선보인다. 김대중 대통령 친필유묵 24점, 이희호 여사 작품 1점 외에도 전국 유명서예가 56명이 대통령 어록을 소재로 한 소중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언급한 ‘敬天愛人’은 1985년 2월 작품으로 둘째 아들 김홍업, 신선연 부부에게 써 준 글씨다. 정갈하면서도 깊은 사유를 발하는 듯한 글씨는 김대

중 대통령의 신중하면서도 사색적인 평소 성품을 보여준다.

‘行動하는良心’은 1985년 작품이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질곡의 삶을 살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을 견지했다. 고인은 평생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모진 탄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았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양심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 얼마 전 2009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이민위천’(以民爲天) 작품도 볼 수 있다. 백성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다.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이며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기본 사상이었다. 국민이 없는 정부,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씨는 활달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일필휘지로 단번에 쓴 필체는 DJ의 굵은 신념 등이 투영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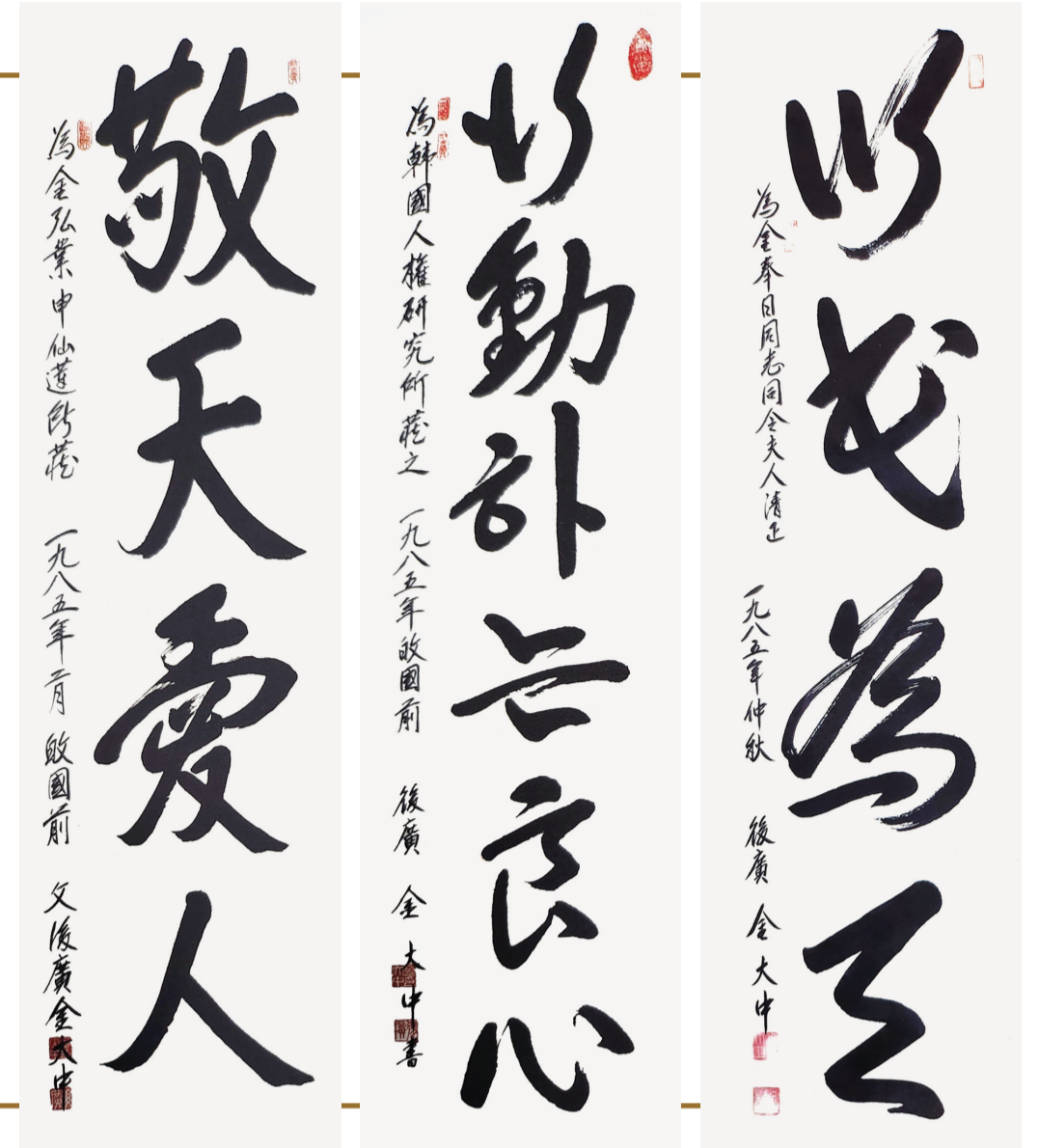
세상을 사는 지혜가 담긴 주옥같은 말도 있다.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86년 작)이 그것. “군자는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다양성 속 조화를 추구하는 말이다. 호화하면서도 섬세한, 등글한 이미지의 서체는 다정한 느낌을 준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뜻으로도 통용된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다. 다른 것들이 융합돼 하나로 결집될 때 무한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다.

개막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대중재단 지도부를 비롯해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차복 위원장은 “이번 서예전을 통해 김대중 정신인 용서와 화해,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명한 가을 목향 가득한 전시장을 방문해 우리의 역사, 후광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서예 잔치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경천애인’(敬天愛人)

‘행동하는 양심’(行動하는良心)

‘이민위천’(以民爲天)

## 배동신 어등미술제 대상에 고예진 작가 ‘온기’

회화66점, 서예·문인화 107점 수상

제34회 배동신 어등미술제 ‘배동신대상’에 고예진 작가의 ‘온기’가 선정됐다.

회화 부문 대상 수상작 ‘온기’는 “작품의 구성이나 완성도 색깔 등이 탁월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창작지원금 300만원, 개인전 기회가 주어진다.

광산문화원(원장 오동근)은 최근 심사회를 열어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미술제에는 320여점이 공모했으며 이 가운데 회화66점, 서예·문인화 107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회화 부문 최우수상은 김소현의 ‘엔돌핀 찾기’에게 돌아갔다.(창작지원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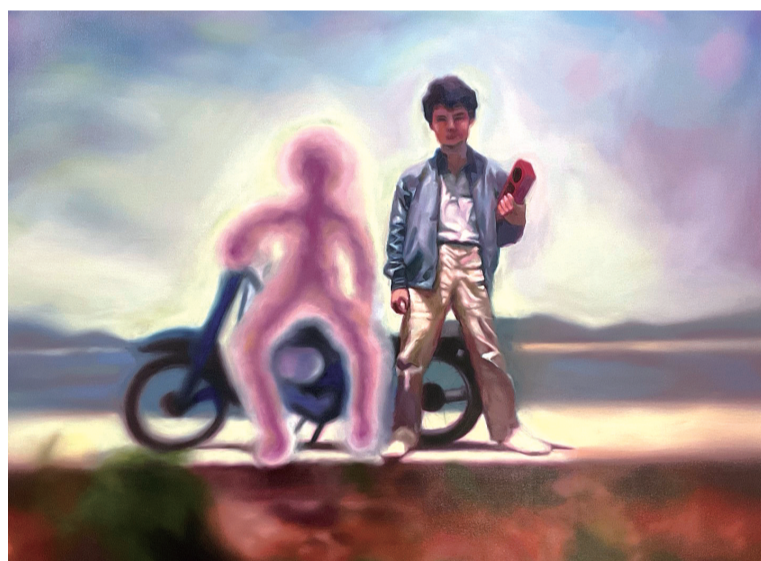
‘어등대상’은 서예한문 부문 장춘희의 ‘놀재 선생시’, 문인화 부문 정영숙의 ‘맑은 바람이 달빛에’가 각각 선정돼 창작지원금 300만원, 개인전 개최 기회가 주어진다.

심사위원들은 장춘희의 ‘놀재 선생시 작품’에

대해 “활발하면서도 군제미와 힘이 느껴지는 수작”이라 평했으며, 정영숙의 ‘맑은 바람이 달빛에’는 “먹색과 여백, 구도 면에서 조화가 잘 어울려 있다”고 호평했다.

최우수상 서예한글 부문은 권미라의 ‘수피아시(연제가 때가 되면 중)’가 뽑혔으며 창작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배동신어등미술제 특별상 이상 입상작은 오는 11월 15일~21일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배동신어등미술제 대회장인 오동근 광산문화원장은 “이번 미술제가 창의성과 열정이 결집된



고예진 작 ‘온기’

역량 있는 미술제로 진행됐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며 “향후 있을 전시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화 매개로 참여형 찬반 토론회 펼쳐요

양소리 문화기획자, 11월2일·9일  
미로극장서 ‘영화 한 편, 토론 한 편’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민주 사회가 늘 유지될 수 있을까?,” “재난은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가?”

정답이 없는 딜레마적 질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영화 토론회가 마련된다. 양소리 문화기획자가 오는 11월 2일, 9일 오후 2시 미로극장에서 펼치는 ‘영화 한 편, 토론 한 편’에서다.

재난 상황에서 피난민 수용 과정의 도덕적 갈등을 다룬 ‘콘크리트 유토피아’, 인공지능 기술로 죽은 이를 복원해 그리움을 달래는 ‘원더랜드’ 두 편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패널 10명 및 참가자들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대화방을 통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사회에 광우영화비평자 ‘진1980’ 편집위원 임의현.

2일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시작하는 행사는 9일 영화 ‘원더랜드’ 속 흥미로운 질문들로 이어진다. 그리운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것이 위로인지, 현실 왜곡인지 논한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네트워킹 파티도 펼쳐질 예정이다.

양소리 기획자는 “영화 토론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키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단순 ‘감상’을 넘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유의 충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원더랜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나주학생독립운동 헌정음악회 ‘타는 목마름으로’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

30일 옛 나주역사 내에서 공연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발한 ‘나주학생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과 열망을 바쳐 식민교육 철폐와 대한독립을 외치며 투쟁했다. 이후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측면에서도 일제강점기 주요 사건으로 손꼽힌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이 제16회 나주학생독립운동 헌정음악회 ‘타는 목마름으로’를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구)나주역사 내에서 펼친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됐던 그 날, 그곳에서 학생 열사들의 숭고한 의지를 음악으로 추모한다.

무지크바움(이화) 유소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구성된 앙상블은 헨델의 ‘사라방드’, 김민기 ‘상륙수’, 쇼스타코비치 ‘재즈왈츠 제2번’을 들려준다.

연주회를 위해 위촉한 랑 현악사중주단(이수연 등)은 정성엽의 ‘죽은 어린 영혼들을 위한 헌정’을 선사한다. 이어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제2악



지난해 (구)나주역사에서 진행된 ‘제15회 나주학생독립운동 헌정음악회’ 공연 장면. <무지크바움 제공>

장’을 현악 사중주 버전으로, 바버 곡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연주할 예정이다.

끝으로 시 낭송가 노경호가 김남주 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낭송하고 전 출연진이 ‘타는 목마름으로’를 합창한다.

김선철 음악감독은 “이번 공연은 광주학생운동

의 시발점이 된 나주학생독립운동을 알리고자 지난 2008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헌정 음악회”라며 “올해는 김지하 시인의 참여시 ‘타는 목마름으로’에서 모티브를 얻어 그의 시를 낭독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시집 ‘물염의 노래’ 나종영 시인 출판기념회 성료

시집 ‘물염의 노래’를 펴낸 광주 출신 나종영 시인(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의 출판기념회가 성료됐다.

지난 26일 오후 4시 5·18민주화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을 비롯해 문단 선후배, 동료, 친지와 지인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조진태 시인의 사회로 열린 출판기념회는 서예 속 시인의 ‘물염의 시’ 낭송으로 막이 올랐다.

박석무 죽형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이사장, 정희성 시인, 김준태 시인, 정양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호균 시인의 ‘무등은 어디서 보아도’ 시 낭송이 울려 퍼졌다.

나해철 시인은 ‘내가 본 나종영 시인’을, 임동화 시인은 ‘나종영의 시 세계’를 매개로 나 시인의 시 세계를 조명했다.

시낭송과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고영서 시인이 ‘마랑’을, 송태웅 시인이 ‘낙타’를 낭송했으며, 시

노래 가수 박경하는 ‘능소화 피는 밤, 마로니에에 피는’을 선사했다.

이대훈 시인의 ‘얼레지’에 이어 가족시 낭송 순서로 큰머리 문린 씨는 ‘꽃은 상처다’를 들려줬으며 김미옥 서평가는 서평 한 쪽지를 낭독했다.

닫는 시로 박두규 시인은 ‘고희’로 참석자들과 교감했으며 벨라보체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등을 선사했다.

한편 나종영 시인은 “23년 만에 펴낸 시집 출판기념회에 문단 선후배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축하를 해주셔서 가슴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시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종영 시인은 80년대 초 광주민중문화연구회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광주·전남작가회의, 순천작가회의 출범을 견인했다.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